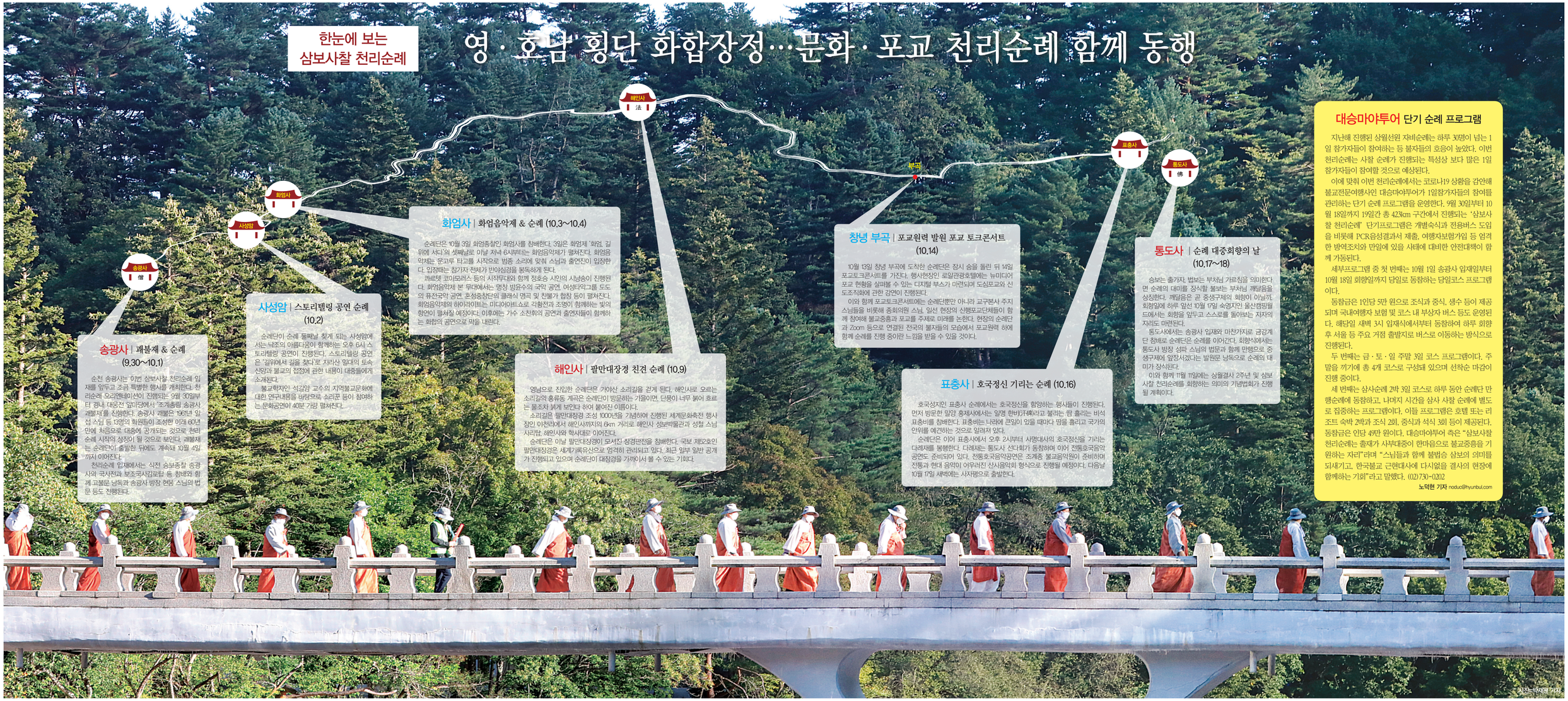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영·호남 횡단 화합장정…문화·포교 천리순례 함께 동행



송광사 | 괘불재 & 순례 (9.30~10.1)

순천 송광사는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를 앞두고 조금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천리순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9월 30일부터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총림 송광사 괘불재'를 진행한다. 송광사 괘불은 1695년 일심 스님 등 13명의 화원들이 조성한 이래 69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천리순례 시작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괘불재는 순례면수 출발일 뒤에도 계속돼 10월 4일까지 이어진다.

천리순례 입재에서는 식전 승보종찰 송광사의 국사전과 보조국사감로탑 등 참배와 함께 고불문 남독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법문 등도 진행된다.

사성암 | 스토리텔링 공연 순례 (10.2)

순례단이 순례 둘째날 찾게 되는 사성암에서는 낙조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오후 6시 스토리텔링 공연이 진행된다. 스토리텔링 공연은 '길위에서 길을 찾다'로 지리산 일대의 토속신앙과 불교의 접점에 관한 내용이 대중들에게 소개된다.

불교학자인 석길암 교수의 지역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소리꾼 등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이 40분 가량 펼쳐진다.

화엄사 | 화엄음악제 & 순례 (10.3~10.4)

순례단은 10월 3일 화엄종찰인 화엄사를 참배한다. 3일은 화엄제 '화엄, 길위에 서다'의 셋째날로 이날 저녁 6시부터는 화엄음악제가 펼쳐진다. 화엄음악제는 운고루 타고를 시작으로 범종 소리에 맞춰 스님과 출연진이 입장한다. 입장때는 참가자 전체가 반야심경을 봉독하게 된다.

쿼르텟 코이퍼러스 등의 시작무대와 함께 정호승 시인의 시낭송이 진행된다. 화엄음악제 본 무대에서는 명창 방유수의 국악 공연, 여성더익그룹 도도의 퓨전국악 공연, 호쌍중창단의 클래식 명곡 및 찬불가 합창 등이 펼쳐진다. 화엄음악제의 하이라이트는 미디어아트쇼로 각황전과 조명이 함께하는 빛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가수 소찬휘의 공연과 출연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해인사 | 팔만대장경 친견 순례 (10.9)

영남으로 진입한 순례단은 가야산 소리길을 걷게 된다. 해인사로 오르는 소리길의 홍류동 계곡은 순례단이 방문하는 가을이면, 단풍이 너무 붉어 호르는 물조차 붉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리길은 팔만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세계문화축전 행사장인 이천리에서 해인사까지의 6km 거리로 해인사 성보박물관과 성철 스님 사리탑, 해인사와 학사대로 이어진다.

순례단은 이날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장경판전을 참배한다.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은 세계기록유산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최근 일부 일반 공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순례단이 대장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다.

창녕 부곡 | 포교원력 발원 포교 토크콘서트 (10.14)

10월 13일 창녕 부곡에 도착한 순례단은 잠시 숨을 돌린 뒤 14일 포교토크콘서트를 가진다. 행사현장인 로얄관광호텔에는 뉴미디어 포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부스가 마련되며 도심포교와 신도조직화에 관한 강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포교토크콘서트에는 순례단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종회의원 스님, 일선 현장의 신행포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불교중흥과 포교를 주제로 미래를 논한다. 현장의 순례단과 Zoom 등으로 연결된 전국의 불자들의 모습에서 포교원력 하에 함께 순례를 진행 중이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충사 | 호국정신 기리는 순례 (10.16)

호국성지인 표충사 순례에서는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행사들이 진행된다. 먼저 방문한 일강 홍제사에서는 일명 한비각(碑)라고 불리는 땀 흘리는 비석 표충비를 참배한다. 표충비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리고 국가의 안위를 예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례단은 이어 표충사에서 오후 2시부터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다례재를 봉행한다. 다례재는 통도사 선다회가 동참하며 이어 전통호국음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전통호국음악공연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준비하며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신시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날 10월 17일 새벽에는 사자평으로 출발한다.

통도사 | 순례 대중회향의 날 (10.17~18)

승보는 출가자, 법보는 부처님 가르침을 의미한다면 순례의 대미를 장식할 불보는 부처님 개념을 상징한다. 개념은 곧 중생구제의 회향이 아닐까. 회향일에 하루 앞선 10월 17일 숙영지인 울산캠핑월드에서는 회향을 앞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자의 자리도 마련된다.

통도사에서는 송광사 입재와 마찬가지로 금강계단 참배로 순례단은 순례를 이어간다. 회향식에서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과 함께 만행으로 중생구제에 앞장서겠다는 발원문 낭독으로 순례의 대미가 장식된다.

이와 함께 11월 11일에는 상월결사 2주년 및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회향하는 의미의 기념법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대승마야투어 단기 순례 프로그램

지난해 진행된 상월선원 자비순례는 하루 30명이 넘는 1일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등 불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번 천리순례는 사찰 순례가 진행되는 특성상 보다 많은 1일 참가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이번 천리순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교전문여행사인 대승마야투어가 1일참가자들의 참여를 관리하는 단기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일간 총 423km 구간에서 진행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단기프로그램은 개별숙식과 전용버스 도입을 비롯해 PCR음성결과서 제출, 여행자보험가입 등 엄격한 방역조치와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함께 가동된다.

세부프로그램 중 첫 번째는 10월 1일 송광사 입재일부터 10월 18일 회향일까지 당일로 동참하는 당일코스 프로그램이다.

동참금은 1인당 5만 원으로 조식과 중식, 생수 등이 제공되며 국내여행자 보험 및 코스 내 부상자 버스 등도 운영된다. 해당일 새벽 3시 입재식에서부터 동참하여 하루 회향 후 서울 등 주요 거점 출발지로 버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는 금·토·일 주말 3일 코스 프로그램이다. 주말을 끼기에 총 4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 진행 중이다.

세 번째는 삼사순례 2박 3일 코스로 하루 동안 순례단 만행순례에 동참하고, 나머지 시간을 삼사 사찰 순례에 별도로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호텔 또는 리조트 숙박 2박과 조식 2회, 중식과 석식 3회 등이 제공된다. 동참금은 인당 49만 원이다. 대승마야투어 측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출재가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자리"라며 "스님들과 함께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다시없을 결사의 현장에 함께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02)730-020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리산 바라보기 기자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僧寶宗刹 송광사

송광사는 불교의 세가지 보배인 부처님(佛), 부처님가르침(法), 부처님가르침을 따르는 제자(僧) 중 승보(僧寶)와 관련된 승보사찰이다.

송광사는 신라 말 혜린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길상사(吉祥寺)로 작은 규모의 절이었지만 고려시대 중창되고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이곳에서 펼치고 고려 희종이 길상사를 수선사(修禪社)로, 송광산을 조계산(曹溪山)으로 개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후 보조 국사의 법맥을 진각국사(眞覺國師)가 이어받아 중창한 때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 동안 16명의 국사를 배출하면서 승보사찰의 지위를 굳혔다.

대웅보전 뒤에 자리한 수선사와 국사전은 승보사찰로서의 핵심 전각이다. 국보 56호 국사전은 고려 공민왕 때 건립됐으며, 16국사의 진영이 봉안돼 있다.

고려 때부터 전해지던 16국사 진영 대부분은 1995년에 도난당했으나 2018년 복원됐다. 이들 진영은 매년 보조국사 종재일에만 일반에게 개방된다.

송광사는 승보사찰 답게 사찰의 가장 위쪽 상대에 스님들의 수행처가 있다. 이를 수선(修禪) 구역이라 하는데 결사의 정신이 서려있는 곳이다.

송광사는 승보사찰 답게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함께 따르고자 재가자 수련도 활성화 되어 있다. 1971년 구산 스님이 구상하고 법정 스님이 초대수련원장을 맡아 스님들의 수행을 본떠서 만든 재가자여름수련회는 재가자 교육 개념조차 없었던 당시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근래들어 국민들의 명상과 불교문화유산 체험의 기회가 되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원류를 송광사에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송광사는 목조문화재가 많으며, 경내에는 약 80여 동의 건물과 부도·비석 등이 있다. 16국사의 영정을 봉안하는 국사전 등의 국보 4점을 비롯하여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 등 보물 13점, 천연기념물인 쌍향수 등 국가문화재 17점과 정혜국사사리함 등 지방문화재 10점을 포함, 모두 27점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무엇보다 송광사는 새벽 예불의 은은한 목탁 소리, 낭랑한 독경, 찬란한 고찰의 승맥을 이어가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그 자체로 성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광사 처녀예불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華嚴宗刹 화엄사

사찰은 다양한 신앙과 역사를 품고 있다. 불법승 삼보의 삼보사찰과 함께 천리순례 과정에 있는 화엄사는 화엄사상을 대표하는 화엄종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화엄사가 불타고 다시 만든 사적기에 따르면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연기(緣起) 조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화엄사에는 백제 법왕 때인 599년에는 3000여 스님이 머물며 화엄사상을 꽃피웠다. 643년(선덕여왕 12년)에는 자장율사가 증축하고, 부처님 진신사리 73과를 모시는 석존사리탑(釋尊舍利塔)과 7층탑 등을 세웠다.

〈봉성지(鳳城志)〉에 따르면,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아 석관에 〈화엄경 80권〉을 새겨 절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이때 의상대사가 황금장육불상을 모신 곳이 지금의 각황전이다.

신라 경덕왕(742~764) 때 화엄사는 가장 융성한 사세를 지녔는데 당시 8원 81암자로 화엄세계를 드러냈다. 신라 말기 헌강왕(875)때 도선국사가 동오층석탑, 서오층석탑을 조성하고 화엄사 중흥조가 되며 화엄종찰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오랜 역사로 인해 화엄사는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중요한 전각 중 하나인 각황전은 국보 제67호로 조선 중후기인 숙종 때 지어진 건물이지만 숭유억불의 기조 속에서도 임금이 정사를 보던 근정전 다음으로 큰 규모의 법당이다. 본래 장육전이 소실되어 복원하면서 숙종이 현판을 〈각황전〉이라 사액했다.

각황전 앞에는 거대한 석등이 있는데, 국보 제12호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황전 뒤로 돌아가면 탑전이 나오며 이곳에 세워진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은 이형탑 가운데 불국사 다보탑과 더불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탑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영산회괘불탱도, 동오층 석탑, 서오층 석탑, 대웅전, 원통전 앞 사자탑, 화엄석경, 서오층 석탑 사리장엄구, 대웅전 삼신불탱,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등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다.

화엄사는 천년고찰로 그동안 화마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이때마다 대중들의 마음이 모여 사찰을 복원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로도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엄사 각황전 앞 전경